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a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 01 202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24 / 1

시절 인연	02	단순하고 간소한 삶
법정 스님 편지	06	어디서 무엇을 하건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08	그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법정 스님 따라 하기	12	설산에 사는 자 3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6	변행외도를 밟고 법을 묻다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길 위에서의 생각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1월 1일 발행 / 통권 347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및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단순하고 간소한 삶

오늘, 부처님께서 도(道)를 이룬 성도절에 여러분과 만나게 된 시절인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월 초파일은 싯다르타 태자가 어머니한테서 나온 육신의 탄생일이지만, 성도절은 8만 4천 번뇌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지혜의 눈’을 뜬 여래 법신이 되는 날입니다.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진리를 깨달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조사 어록에도 본래 우리는 이루어져 있는 존재, 모자람이 없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새삼스럽게 수행하는 걸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갖춰진, 온전한 존재인 우리가 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본래 갖춰진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행하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이미 이뤄져 있는 불성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 밝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더욱 정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세상, 인간 자체도 쓰레기가 되어 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땅에서 나온 것은 다시

땅으로 되돌아가는 비료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어 각종 화학 공업제품이 땅과 지하수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땅에 들어가도 삭지 않습니다. 쓰레기란 대량 소비 사회에서 나온 배설물입니다. 우리가 더욱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삶입니다. 단순하고 간소한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을 누릴 수 있고, 안팎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늘 목마른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에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차 한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삶의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행복은 이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있는 것이지, 결코 크고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운명은 자연이 낳은 이자만으로도 모자라서 자연이 축적해 놓은 자본까지 갹아먹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이 낳아준 이자만 가지고도 살 수 있었지만, 오늘의 물질 문명은 자연이 수만 년을 두고 쌓아온, 자본까지 빼먹고 있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가 문제입니다.

미국식 산업구조에서 온 소비 현상, 그리고 소비주의적 생활방식은 인간에게 삶의 기쁨이나 충만감을 주기보다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켜 생태계를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자, 미래학자들은 21세기까지 인간들이 지금과 같은 대량 소비를

지향하는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다음 세기에도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곧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병들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며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허물고 거스르는 인간의 행위들은 자연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행위는 다시 결과로써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지구의 자원이란 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소비와 포식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들은 건강해질 수 없으며 우리 삶의 터전은 끝내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비사회에서는 광고의 해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문과 방송, 전단을 통해 퍼부어지고 있는 똑같은 내용의 무수한 광고들은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능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모양과 이름만 바꾼 신제품들이 수시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문과 방송은 상업주의의 용병입니다. 그 술한 상업 광고로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신문과 방송들이 한 편으로 Green 캠페인과 환경운동을 벌이고, 그 신문을 만들어 내느라 한 해에 수십만 평의 숲이 사라지고, 사막이 늘어나고 있는 부조화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면 그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은 해탈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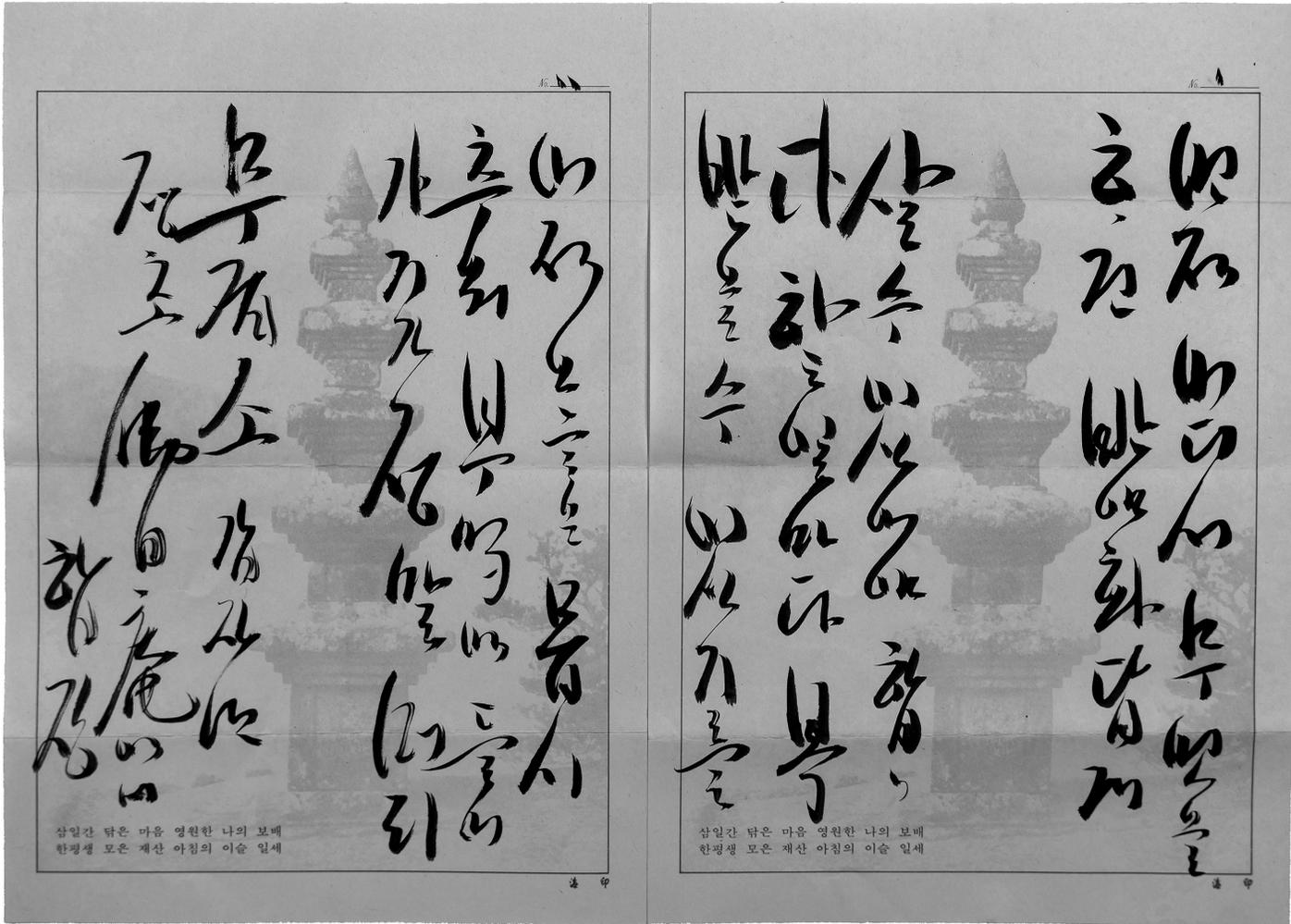
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습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늘 생동하면서 하루하루 꽃처럼 피어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며,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독창적인 존재, 삶의 방식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마다의 삶의 몫이 있는데 남과 비교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기심만 유발해 낼 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몫이 있습니다. 그 그릇과 내 몫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남의 몫을 자꾸 넘보고, 남의 그릇을 탐냅니다.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이 사회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맺고 있으면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으니, 머리가 무거울 뿐입니다. 단순한 삶이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보지 않아도 좋을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좋은 것은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좋은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성숙해지고 삶이 승화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1996년 1월 27일 법정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전주 모임 강연(전주 문화예술회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2. 법정 스님 편지



삼일강 닭은 마음 영원한 나의 보배  
한평생 모은 재산 아침의 이슬 일세

삼일강 닭은 마음 영원한 나의 보배  
한평생 모은 재산 아침의 이슬 일세

먼저 어디서 무엇을

하건 반야화답게

살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복받을 수 있기를

어제 오늘은 몹시 추워

부엌에 들어가기가

정말 머리 무겁소.

갑자년 정초

불일암에서

합장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의  
반야화답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 그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연말에 편지를 몇 통 받았다. 평소에는 서로가 잇은 채 소원히 지내다가도,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 이르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게 마련이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해마다 카드를 보내주는데, 올해도 거르지 않고 '더 늙기 전에 스님 만나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소'라고 회포를 전해주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세상의 일이 아닌가 싶다.

한 친구가 편지에 불쑥, 그곳 산중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선문답 처럼 물었다. 이 물음을 받고 나는 문득 옛 은자의 시가 떠올라, 앞뒤 인사말 줄이고 다음의 시를 써서 회신으로 띄웠다.

山中何所有 (산중하소유)  
嶺上多白雲 (영상다백운)  
只可自怡悅 (지가자이열)  
不堪持贈君 (불감지증군)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산마루에 떠도는 구름  
다만 스스로 즐길 뿐  
그대에게 보내줄 수 없네.

옛날 깊은 산 속에 숨어 사는 한 은자에게, '그 산중에 무엇이 있기에 거기 머물러 세상에 나오지 않는가?' 라고 친지가 물었다. 은자는 그 친지에게 답하기를, 자신의 거처에는 이렇다 할 아무것도 없지만 산마루에 떠도는 무심한 구름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경지는 혼자서나 조촐히 즐길 뿐 그대에게는 보내줄 수 없노라고 말한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그 은자의 욕심을 떠나 담담하고 소탈한 삶을 엿볼 수 있다.

구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보태겠다. 고려 말 태고 보우 스님의 문집에 구름 덮인 산을 노래한 '운산음雲山吟'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산 위에 흰 구름은 희고  
산 속에 시냇물은 흘러간다  
이 가운데서 내가 살고자 했더니  
흰 구름이 나를 위해 산모퉁이를 열어 놓았네  
흰 구름 속에 누워 있으니  
청산이 나를 보고 웃으면서  
'걱정 근심 다 부려 놓았구려' 하네  
나도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산이여, 그대는 내가 온 연유를 아는가  
내 평생 잠이 모자라  
이 물과 바위로 잠자리 삼았노라

청산은 나를 보고 웃으면서 말하네  
왜 빨리 돌아와 내 벗이 되지 않았는가  
그대 푸른 산 사랑하거든  
덩굴풀 속에서 편히 쉬게나

옛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쫓기지 않고 이런 운치와 풍류를 지니고 넉넉하게 살 줄을 알았다. 자신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알고서 그 품에 안겨 동화될 수 있었다. 세상살이에 닳아지고 지치게 되면 산에 들어가 숲속에 쉬면서 자기 자신의 자취를 되돌아보곤 했다.

어느새 묵은해가 기울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가 바뀌면,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한 해가 더 보태지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한 해가 줄어든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보태지는 쪽인가, 줄어드는 쪽인가.

그러나 보태지고 줄어드는 일에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육신의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대한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신답게 살아간다.

삶은 끝없는 변화이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과 세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수시로 변해가면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생명의 숨결도 흐르는 강물처럼 낡은 것과 새것이 잇따르고 있다. 이게 바로 살아 있는 생명의 흐름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표도 지향도 없이 어디론지 끝없이 표류하고 만다. 덧없는 세월 속에서 의미 없는 삶으로 막을 내린다면, 우리 인간사가 너무 허무하지 않겠는가.

우리 시대에 이르러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은 그 중심을 잃은 채 휘청거리고 있다. 당당한 인간으로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인간들 스스로가 그 설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의 고리가 튼튼하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를 물을 것 없이 조화와 균형이 곧 건강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는 그 조화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현대인들의 가슴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삭막해서 생명의 싹이 움틀 여지가 없다는 소리다.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가슴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가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인 사랑도, 다정한 눈빛도, 정겨운 음성도 가슴에서 싹이 튼다. 가슴은 이렇듯 생명의 중심이다. 그 중심의 기능이 마비된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른다.

오늘의 문명은 머리만을 믿고, 그 머리의 회전만을 과신한 나머지 가슴을 잃어가고 있다. 중심에서 벗어나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슴이 식어 버린 문명은 그 자체가 크게 병든 것이다.

비인간적인 이런 수렁에서 헤어나려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따뜻한 가슴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 물질의 더미에 한눈파느라고 식어 버린 가슴을 다시 따뜻하게 가꾸어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만이 우리를 사람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다.

따뜻한 가슴은 어디서 오는가. 따뜻한 가슴은 저절로 움트지 않는다. 이웃과의 정다운 관계를 통해서, 사물과의 조화로운 접촉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진다.

— 오두막 편지 중에서

## 설산에 사는 자 3

176

설산 야차는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다.

“지혜가 깊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천상의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仙人)을 보라.

(\*천상의 길은 진리의 길을 말한다.)

177

명성이 높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지혜를 가르쳐 주고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알고 거룩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178

오늘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새날을 맞이했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깨달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179

여기 1천이나 되는 야차의 무리들은 초능력이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더 없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180

우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에 예배드리면서.”

143~180 강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 처서를 지나더니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선득거리고 풀벌레며 귀뚜라미가 계절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이제는 여름에 내렸던 발을 거두고 하루 이틀 걸러 군불도 지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다.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인가. 계절이 바뀔 때 따라 우리들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여름날의 무더위와 물결 때문에 등불을 멀리했던 우리들은, 이제 밤이 길어지고 안으로 투명해지고 싶은 계절 앞에서 다시 등불을 가까이할 수가 있다. 어느새 하늘도 높아지고 별자리도 한층 또렷해졌다.

설산 야차가 지닌 깨달은 분에 대한 의문은 탐구하는 사람들로 는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물음이다. 투철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그런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불교 신자이면서도 자신의 정진과 체험이 없이 남의 말에만 팔리다 보면, 설산 야차와 같은 그런 회의를 문득문득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밖으로 향하려는 관심과 시각을 안으로 돌이켜 설산 야차의 물음을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거듭 말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뜻은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내 자신의 탐구에 보다 큰 뜻이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덕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은 살아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과연 자비심을 지니고 있는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내 생각은 자제될 수 있을까? 또 나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말도 없이 가진 일은 없는가? 지난여름 모기나 파리 등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으려고 자제해 보았던가? 그리고 게으름을 피운 적은 없었던가?

경전 읽기를 시작한 이래 혹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는가? 욕설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여 친구 사이를 이간시킨 일은 없었는가? 쓸데없는 말로 남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은 적은 없었는가?

이와 같은 자기반성을 통해 삶이 개선되어야 창조적인 새로운 삶을 가꿀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전은 내 자신의 현존재를 환히 비춰 볼 수 있는 거울이어야 한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중인격자나 위선자라고 한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인격이 분열되었다고 한다.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말 없는 행동을 우리는 훨씬 높이 평가한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오직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 짐승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고 복지사회의 실현과 청렴결백한 공직자를 표방한 바로 그 정권의 당사자가, 국민의 눈과 귀를 겹겹으로 차단해 놓고 자기네 집안끼리 일찍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온갖 부정과 비리를 자행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 시대의 구겨진 현실을 통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탐욕과 어리석음의 근원을 냉철히 추구함으로써, 우리들 모두의 삶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다. 그런 탐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형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들어오는 향기, 혀에 닿는 맛, 살갗에 닿는 감촉 등이 바로 우리들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집착하면 욕망의 대상으로 돌변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가 어디 그리 쉬운 노릇인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생활 규범(戒)을 몸에 지니고, 지혜를 기르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라는 것이다. 그리고 염원을 지니라고 한다.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삼학(三學)을 익히고 큰 원을 세운 사람만이 건너지 어려운 흐름을 건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능적인 욕망이 없어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생사윤회의 바다에도 가리얏지 않는다 한다.

사람은 순간순간 익히는 대로 풀려간다. 이 순간의 의지적인 선택 여하에, 따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가을의 사람은 지난여름 그 사람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변행외도를 뵈고 법을 묻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이 법을 구해도 싫음이 없는 장엄문을 얻었고, 법이 평등한 자리에 있는 총지문總持門을 얻었으니, 그대는 내가 이 불가사의한 자재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싶은가?”

선재동자는 진심으로 보고 싶다고 했다. 그때 부동 청신녀는 용장 사자좌에 앉아, 법을 구해도 싫음이 없는 장엄 삼매문과 공췌하지 않은 장엄 삼매문과 열 가지 힘의 지혜 바퀴가 앞에 나타나는 삼매문과 불종佛種 무진장 삼매문에 들어갔으며, 이와 같이 일만 삼매문에 들어갔다.

부동 청신녀가 삼매에서 일어나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법을 구해도 싫음이 없는 삼매의 광명을 얻고, 중생에게 미묘한 법을 말해 기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은 가루라迦樓羅처럼 허공으로 다니면서 걸림 없이 중생 바다에 들어가 선근이 성숙한 중생을 보고는 곧 들어다가 보리의 기슭에 둔다. 또 상인들처럼 큰 보물섬에 들어가 여래의 열 가지 힘과 지혜의 보배를 구하며, 어부처럼 정법의 그물을 가지고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 애욕의 물속에서 중생들을 건져내되, 마치 아수라왕이 삼계의 큰 성과 번뇌의 바다를 뒤흔들 듯이 한다.

또 해가 허공에 뜨듯이 애욕의 진흙을 비추어 마르게 하고, 보름

달이 허공에 뜨듯이 지도받을 사람의 마음 꽃을 피게 하고, 대지가 두루 평탄하듯이 한량없는 중생들이 그 안에 머물면서 모든 선한 법의 뿌리와 싹을 키우게 하고, 큰바람이 가는 길에 걸림 없듯이 모든 나쁜 소견의 나무를 뽑아 버리고, 또 전륜왕처럼 세간에 다니면서 네 가지 거두어 주는 일(四攝事)로 중생을 거두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무량도살라無量都薩羅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 출가한 외도外道가 있으니 이름이 변행徧行이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선재동자는 부동 청신녀에게서 법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가르침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사유 관찰했다. 점점 나아가 나라와 도시를 지나 도살라성에 이르렀다. 해가 질 무렵 성안에 들어가 가게와 골목과 네 길거리로 두루 다니면서 변행 외도를 찾았다. 성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름이 선덕善德이었다. 선재가 한밤중에 산꼭대기를 보니 초목과 바위에 광명이 환하게 비쳐 마치 해가 뜨는 것 같았다. 이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틀림없이 이곳에서 선지식을 만나려나 보다.’

선재는 성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갔다. 그 외도는 산 위 평탄한 곳에서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용모가 원만하고 위엄과 광채가 찬란해 대범천왕으로도 미칠 수 없었으며, 십천의 범중衆이 모시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그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

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변행이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행에 편안히 머물러 있다. 세간을 두루 관하는 삼매문을 성취했고,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력을 성취했으며, 넓은 문 반야 바라밀을 성취했다.

나는 널리 세상에서 갖가지 장소와 모양과 행해行解로써 온갖 길에 나고 죽나니, 이른바 하늘·용·야차夜叉·건달바乾闥婆·아수라阿修羅·가루리迦樓羅·긴나리緊那羅·마후라가摩睺羅伽·지옥·축생·염라왕계·인비인人非人 등의 길이며, 여러 소견에 빠지거나 이승二乘을 믿거나 대승을 좋아하는 이런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갖가지 방편과 지혜의 문으로 그들을 이롭게 한다.

또는 모든 세상의 갖가지 기예技藝를 말해 온갖 오묘한 기술 다라니 지혜를 갖추게 하며, 사섭방편四攝方便을 말해 온갖 지혜의 길을 갖추게 하며, 모든 바라밀을 말해 온갖 지혜의 자리에 회향케 한다. 또 보리심을 칭찬해 위없는 도의 뜻을 잃지 않게 하며, 보살행을 칭찬해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소원을 가득 채워 주며, 나쁜 짓을 하면 지옥의 온갖 고통받는 일을 말해 악업을 싫어하게 한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선근을 심으면 온갖 지혜의 과보를 얻는다고 말해 환희심을 내게 하며, 여래·응공·정등각의 공덕을 찬탄해 부처님의 몸을 좋아하고 온갖 지혜를 구하게 하며,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찬탄해 부처님의 불괴신不壞身을 좋아하게 하며, 부처님의 자재신自在身을 찬탄해 여래의 가릴 수 없는 큰 위덕을 구하게 한다.

이 도살라 성안의 여러 곳에 있는 남녀들 가운데서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의 형상과 같이 몸을 나타내 그들에게 알맞게 법을 말한다. 그들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법을 듣는 이마다 사실대로 수행하게 되니, 나는 이 성에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듯이 염부제의 성읍과 마을 등 사람이 사는 곳마다 이처럼 이롭게 한다.

선남자여, 염부제에 있는 96종 무리들이 저마다 다른 견해로 집착하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방편으로 조복해 그릇된 소견을 버리게 한다. 염부제에서처럼 다른 사천하四天下에서도 그와 같이하고, 사천하에서처럼 삼천대천세계에서도 그와 같이하며, 삼천대천세계에서처럼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중생 바다에서도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갖가지 방편과 법문과 몸과 말로써 법을 말해 이롭게 한다.

나는 다만 이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행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몸이 모든 중생의 수효와 같고, 중생들과 차별이 없는 몸을 얻으며, 변화한 몸으로 모든 길에 두루 들어가 태어난다. 그리고 여러 중생들 앞에서 청정한 광명으로 세간에 널리 비추고 걸림 없는 소원으로 온갖 겁劫에 머문다. 제석천의 그물 같은 견줄 데 없는 행을 얻어 모든 중생을 항상 이롭게 하고, 항상 함께 살면서도 집착이 없다. 삼세에 두루 평등해 무아지無我智로써 널리 비추고, 대비장大悲藏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에서 남쪽으로 가면 광대廣大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 향을 파는 장자가 있으니 이름을 우발라화優鉢羅華라고 한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 6.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 길 위에서의 생각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풀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 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함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기부금코드 41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부금 > 발급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히 등록한 후원자님은 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기부 내역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자(후원자)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2024년 1월 7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연락주셔야 가능합니다.

####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이용하기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 나의 후원 > 중앙모임 로그인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 작성하신 이름과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를 입력 후 인증받아 후원 내역,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 확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증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 02)741-4696,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확인하여 자세한 안내 및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 2024년도 탁상 달력 발송 안내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은 1월부터 10월 말을 기준으로 총 3만 원 이상 후원 해주신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24년 탁상 달력을 12월 초 경 발송해 드린 바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후원이 없었지만, 11월에서 12월 말 까지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과 우편물을 수신 거부하여 받지 못한 분 중 요청하시는 분에게는 1월 중순에 별도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탁상 달력을 받으시고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의 경우 무분별한 배포와

발송을 방지하고자 1개당 5,000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 점을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길상사 벽걸이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길상사 증무실에서 수시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길상사에 방문하여 받아 가시면 됩니다. 벽걸이 달력 우편 발송은 불가합니다.

##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에 밀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급식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기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발식당을 급식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발식당은 어르신들의 사정에 따라 무료 또는 4,000원을 부담하는데, 매일 600~7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 정기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 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 ■ 신정합동차례

- 일시 : 1월 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월 6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 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 성도재일 철야기도

- 일시 : 1월 17일(수) 오후 9시~1월 18일(목) 새벽 4시 ● 장소 : 극락전

#### ■ 성도재일

- 일시 : 1월 18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

- 불기2568(2024) 갑진년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받습니다.
-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도량(마당) 연등	
대등 (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영가등·수기등	3만원
가족등	10만원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신정합동차례	1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1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1월 6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1월 1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성도재일	1월 1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 기도	1월 2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월 28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달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